

경제

경제 돋보기

■ 파업 기아차·금호타이어 휴가후 어떻게 될까

“극적 타결이나 파국이나” 갈림길

금호, 정리하고 세무안 통보... 노조 대응 주목
기아차, 휴가기간에도 노사 의견 교환 계속

여름 휴가전 임금협상 타결이 무산되면서 파업 장기화 국면에 들어간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파업 사태가 휴가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지역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리하고 방점을 밝힌 금호타이어가 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인적 구조조정안을 노조측에 통보해 휴가 복귀후 노조측의 대응에 따라 파국으로 치달을지, 극적으로 타결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등 휴가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금호타

이어는 5일 일정으로 지난 1일 하계 휴가에 들어갔고, 기아차 광주공장도 3일부터 7일까지 정기 휴가지만 사실상 1일부터 9일까지 공장 가동을 멈춘다. 이에 따라 임금협상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지역 대표 사업장인 이들 회사의 파업사태도 일단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의 경우 회사측이 휴가전 노조측에 구조조정안을 통보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노조측도 휴가 복귀후 향후 투쟁 강

도와 일정을 정할 방침이어서 휴가기간이 파업사태 해결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706명의 정리하고 방점을 정한 금호타이어 사측은 지난달 29일 노조측에 구체적인 '경영상 해고를 위한 명예 퇴직 기준'과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사측은 명예퇴직자들에게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고 ▲근속연수 ▲근무태도 ▲부양가족 ▲포상·징계 등의 항목을 점수로 환산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노조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협상을 압박카드'로 보고 휴가가 끝난 뒤 생산량을 50% 줄이는 감산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파업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조측은 '일방적 정리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경영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임금 7.48% 인상 ▲2008년 추가 성과급 및 2009년 성과급 지급 등 기존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도 기본급 8만7천709원(5.5%)인상과 주간연속 2고대제 및 안전원급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사측과의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휴가가 끝난 뒤 10일 쟁의 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일정 등을 정할 방침이지만 휴가 기간중에도 노사 실무자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휴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중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형제의 난’ 게임 오버?

박찬구 전 회장 일주일째 침묵
소송·지분경쟁 모두 어려운 듯

박찬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화학부문 회장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에서 전격 해임된 지 일주일째다. 그사이 동반 사퇴한 박삼구 명예회장은 ‘박찬법 호(號)’를 출범시켰고, 박찬법 신임 그룹 회장은 지난 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태동한 광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찬구 전 회장은 해임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장교(長考)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박 전 회장의 장교 배경과 함께 장교(長考)에 들어간 박찬구 명예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함께 물

러나겠다”고 선언한 28일의 기자회견에서 이사회에 해임 결의에는 흠결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법 신임 회장도 법적 분쟁 가능성은 ‘제로’라고 언급했다. 지분 대결을 통한 반격도 박 전 회장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카드다. 박 전 회장과 아들 박준경 금호타이어 부장이 가진 금호석유화학 지분은 약 18%로, 박삼구 명예회장의 우호 지분인 29%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박 전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석유화학 계열사의 분리 가능성이 소심스럽게 접혀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지켜온 ‘형제경영’의 원칙은 한 명이 원인을 제공해 그룹이 분리될 경우 당사자에게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찬법 회장이 이같은 점을 감안해 “계열 분리 가능성은 0”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LPG 가격 kg당 84~88원 올라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는 이달부터 각 충전소에 공급하는 LPG 가격을 kg당 84원과 88원씩 인상했다. 이로써 8월 E1의 충전소 공급가격은 가정용으로 주로 쓰는 프로판가스가 kg당 832원으로 전월대비 11.2% 올랐다. 차량용 부탄가스는 kg당 1천226원(L당 716원)으로 전월대비 7.4% 인상됐다. SK가스는 E1보다 4원 낮게 책정했던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 가격을 이달부터 E1과 함께 책정했다. 이로써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

모두 전월 대비 kg당 88원씩 올랐다. E1은 “국제 LPG 가격이 프로판은 6월에 t당 395달러에서 7월에 500달러, 부탄은 t당 455달러에서 540달러로 인상되고 환율도 인상돼 제품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LPG 수입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랍코가 국제 LPG 가격을 통보하면, 통상 매출 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비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햇 옥수수 맛보세요” 광주시세계는 2일 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광원도 특산물 전’을 열고 햇옥수수 등을 선보였다. 특산물전은 오는 6일까지 계속되며 옥수수를 비롯해 젓갈, 반찬 등 광원도 특산물 6개 품목이 판매된다. (광주시세계 제공)

광주 소비자 피해 세탁물이 최다

상반기 YWCA 접수 사례

올 상반기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태는 세탁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보다 9.8% 늘어난 총 2천652건으로, 이중 세탁물(360건, 1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261건, 9%)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의류관련 상담 234건(8%),

건강기능식품 118건(4.4%), 가구 109건(4.1%), 학습지 및 교재 106건(3.9%), 자동차 104건(3.9%) 순으로 집계됐다. 세탁물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소비자상담실에서 의류심의 위원회를 운영했던 특수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주로 소비자들과 세탁업자간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휴대전화 무료제공 상술에 의한 총동구일, 휴대전화와 통화품질, 초고속인터넷 계약·해지 관련 문제가 주를 이뤘다. 접수된 상담에 대한 구체적조치는 계

약해제 531건(20%), 환불 472건(17.7%), 수리 318건(11.9%), 교환 297건(11.1%), 합의배상 117건(4.4%), 계약이행 87건(3.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사기 상술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례와 각종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예방은 물론 분쟁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은, 영세자영업자 ‘특례 보증대출’

광주은행은 3일부터 광주·전남지역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대출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광주은행이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1인당 대출 한도는 3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이며 대출 기간은 보증서 조건에 따라 5년까지 가능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특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사업자임을 확인받은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도 금융권 등으로부터 신용관리 규제나 신용회복신청 등이 없으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또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한 업무는 광주은행이 대행해 보증서 발급과 대출업무를 광주은행에서 윈스투프로 처리할 수 있다. (광주시세계 제공)

로드북권

Table with columns: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 위, 당첨금(원). Includes a small grid for numbers 3, 14, 17, 20, 24, 31.

팝콘북권

Table with columns: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Lists prize amounts and winning numbers.

Financial summary box with icons and numbers: 코스피지수 1,557.29 (+54.70), 코스닥지수 504.35 (+4.33), 금리 (국고채 3년) 4.26% (+0.10), 원·달러 환율 1,228.50원 (-21.1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셋코리아' (Asset Korea)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contact inf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완지구' (Suwanji) located near Lotte Mart, featuring listings for Pals Tower and Jungang Medical Buildi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Sangil Real Estate) featuring listings for Motel, Mook-tang, and various commercial buildings.